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매맞는 여성의 생존(survival)에 관한 연구*

정혜숙

(서울시립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폭력가정에서 여성과 자녀 모두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들의 생존과 대처와 관련된 갈등과 딜레마를 모-자녀관계의 관계적 경험을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심터에 거주하고 자녀양육경험이 있는 1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으며 질적분석 소프트웨어인 아틀라스티를 활용하여 자료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가정폭력은 언제 든지 아동학대로 전이,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매맞는 여성과 자녀는 '모성과 효성의 위기'를 공유하며 대처노력에 있어 서로를 위한 생존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상호적 존재의미를 갖는다. 폭력가정의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피해가족구성원들의 복합적 현실을 심도 깊게 이해함을 전제로 여성과 아동을 동시에 역량강화 시키는 통합적 접근이어야 한다.

주제어 : 가정폭력, 매맞는 여성, 현상학, 모성과 효성의 위기, 대처노력

1. 서론

저출산율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사회가 여성과 아동복지의 새로운 전망과 대안들을 통해 가족강화와 가족해체예방을 시급하게 준비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범죄의 심각한 실상과 결과들을 접하면서 우리사회가 아직 가족 위기와 해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응이 크게 부족했음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의 자료¹⁾에 의하면 전체 살인사건 중 약 34.5%가 가정폭력(결혼

* 이 논문은 200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및 동거 배우자나 이성파트너가 가해자인 경우)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여성부(2005)의 전국 대상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현재까지 배우자 폭력 발생률²⁾은 44.6%로 나타났다. 그 동안의 많은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가정폭력은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사회 문제임이 확인되었고, 가정폭력은 피해가족구성원 모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 이 경험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들은 정상적 사회기능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심지어 피해자나 가해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정폭력 관련 국외문헌의 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아동복지차원의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Wolfe, Jaffe, Wilson and Zak, 1985; Fantuzzo and Lindquist, 1989; Rosenberg and Rossman, 1990; Giles-Sims, 1985),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문헌들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연계적 이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대단위 실태조사들은 가정폭력상황에서 어머니와 자녀 모두 동시에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폭력가정의 피해자로서 여성과 아동을 상호 통합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였다(Levendosky and Graham-Bermann, 2001; McKay, 1994; Stiles, 2002). 그러나 전통적으로 매맞는 여성과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전달체계는 뚜렷하게 분리되어있으며 이 두 분야의 실천가들은 여성 혹은 아동 중 어느 하나만을 서비스 우선순위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폭력가정의 어머니와 자녀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Beeman, Hagemester and Edleson, 1999; McCloskey, Figueredo and Koss, 1995; Lewis, 2003). 실제로 아동복지실천가들은 피해여성들을 가정폭력상황에서 자녀들의 문제와 욕구를 인식하는데 실패한 무책임한 어머니로 비난하고 낙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의 부모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점이 지적되었고, 반면 여성복지실천가들에게 아동보호의 철학은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짚어지는 것보다는 어머니에게 그 책임을 과중하게 전가하는(Mother-blaming) 사회문화적 태도를 강화시켜 여성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였다(Magen, 1999; Humphreys, 1999).

위의 문제제기는 또한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가정폭력을 이해하고 실천과제들을 제안하는 조사연구들이 매우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국내 가정폭력 관련 조사들은 피해여성과 아동 모두를 사회복지실천의 주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문제의 분석과 대안개발 차원의 조사연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축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조사들의 초점과 개입대상은 아동과 여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박태영, 2002; 김혜선, 1995; 황혜숙·신선인, 2003; 신은주, 2003; 김정란, 2003; 김경신·김정란, 2004; 장덕희, 2001; 장희숙, 2003; 조미숙·이운로, 1999; 김연옥·박인아, 2000). 기존연구들은 폭력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아동복지적 대안을 고려할 때 아동과 모(母)의 관계적 경험을 중시하고 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한 표

1)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의 주요 검찰청별로 13년 동안 발생한 실안범죄에 관한 수사 및 재판기록 전체리스트를 임의 표집한 397건을 내용 분석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2) 배우자 폭력은 정신적·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포함하여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배우자폭력 발생률로 집계하였다.

적체계로서 모(母)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복지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욕구들을 우선순위로 강조하지 못하여 가족단위로서의 피해여성과 아동의 연계적 개입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폭력가정의 피해여성과 자녀들의 가정폭력경험을 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피해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첫째, 가정폭력의 현실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매맞는 여성의 갈등(struggles)과 생존(survival)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둘째, 자녀들의 가정폭력경험에 대한 매맞는 여성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가정폭력 피해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주체이자 협력자로서의 어머니의 잠재력과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셋째,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매맞는 여성과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실제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본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폭력가정의 피해여성과 자녀들의 갈등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며 기존조사의 대부분은 양적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 현상, 가정폭력이 피해여성과 자녀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과 자녀양육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 질적연구방법의 필요성을 다룬 문헌들을 검토하여 분류, 정리하였다.

1980년대 이후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가정폭력이 피해여성의 심리사회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연구들의 동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현상의 이해에 대한 과거의 분리적 관점을 극복하고 두 현상에 대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고 많은 폭력가정에서 여성과 아동 모두가 동시에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Appen and Holden, 1998; Giles-Sims, 1985; Slep and O'Leary, 2001; Edleson, 1999; Levendosky and Graham-Bermann, 2001; Lewis, 2003). 예로서, 맥케이(Mckay, 1994)의 문헌조사는 가정폭력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고, 컴퓨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들은 피해여성의 45%-70%가 자녀들도 학대 및 폭력의 피해자였음을 보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에펠과 홀덴(Appel and Holden, 1998)은 미국 전역에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는 가구의 40%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또한 루이스(Lewis, 2003)는 최근 연구된 가정폭력 조사결과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조사들 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맞는 여성들의 자녀들이 작게는 30% 크게는 80%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및 방임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반면 국내의 경우 김병주(2004)의 가정폭력 관련 조사문헌들의 분석결과와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2005)의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국내 가정폭력의 현황에 대한 기존 조사들이 아동학대와 아내구타 현상의 상호관련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소수의 최근 연구들

은(김연옥·박인아, 2000; 신영화, 1986)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간의 높은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일련의 국내외 연구들은 폭력가정의 아동들이 설사 피해여성 만큼의 직접적 폭력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가정폭력의 목격과 경험을 통해서도 정신건강과 사회적 기능수행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Wolfe, Jaffe, Wilson and Zak, 1985; Fantuzzo and Lindquist, 1989; Rosenberg and Rossman, 1990; Giles-Sims, 1985; 조미숙, 1999; 조미숙·이윤로, 1999; 김연옥·박인아, 2000).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의 질과 자녀양육자의 역할 및 능력은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욕구만족과 사회적 기능수행(social functioning)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들은(Rosenberg and Rossman, 1984; Saunders, 1994; Martin and Elmer, 1992; Herman, 1992; Kolbo, 1996; 신은주, 2003; 김정란, 2003; 장덕희, 2001; 장희숙, 2003; 조미숙·이윤로, 1999; 김연옥·박인아, 2000; 김재엽·조학래·양혜원, 2003) 대부분 양적조사로써 가정폭력이 여성 혹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신체적·정신적·정서적·재정적 수준의)과 관련된 현황분석을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이 가족구성원들의 관계 및 역할수행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레벤도스키와 그라함-버멘(Levendosky and Graham-Bermann, 2001)은 대단위 문헌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행동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체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폐해정도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쉽게 가정할 수 있지만 이 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증적 조사들은 매우 제한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소수의 문헌들이 가정폭력과 자녀양육(parenting)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면서, 배우자의 신체적·심리적 학대가 피해자들의 자녀양육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그들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들은 가정폭력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성적 심리기능(ma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과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의 저하를 피해여성들의 아동양육 태도 및 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하면서 매맞는 여성들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자녀양육 능력을 도와주는 지지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Fincham, Grych and Osborne, 1994; McCloskey, Figueredo and Koss, 1995; Holden and Ritchie, 1991; Levendosky and Graham-Bermann, 2001). 국내문헌들은 폭력가정 자녀들의 적응문제를 다루면서 관련된 주요 변인들을 확인하고 적응을 돕는 대안적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신성자, 2001; 신은주, 2003; 김정란, 2003; 장덕희, 2001; 장희숙, 2003; 조미숙·이윤로, 1999; 김연옥·박인아, 2000; 김재엽·양혜원·김희수, 2005) 주요 변인으로 가족관계의 질, 자녀양육자의 양육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양육자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자녀 적응문제를 다룬 장희숙(2003)의 연구는 어머니 변수(정신건강, 지지자원의 보유)를 자녀의 적응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고, 김재엽 외(2005)의 가정폭력의 영향으로 발생한 양육환경의 변화를 다룬 최근 조사는 어머니의 낮아진 애정적 양육행동이 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의 보호요인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자녀양육 관련 지지서비스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한편 피레스와 포스트무스(Pyles and Postmus, 2004)는 1985년 이후 이루어진 가정폭력연구들의 총체적 문헌분석을 시도하면서 최근 수행되고 있는 클라이언트 관점 중심의 질적연구들이 가정폭력현상과 문제해결대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이해를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헤젠과 데이비스(Hagen and Davis, 1994)와 니콜스-카스볼트와 스파크스(Nichols-Casebolt and Spakes, 1995)도 역시 사회복지조사의 발전적 동향을 검토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관점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는 기능이며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클라이언트의 경험과 목소리를 연구하는 심층면담과 질적연구방법으로의 전이는 사회복지조사의 역사적 발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문제의 노출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태도의 특성, 그리고 조사대상이 밀집하는 쉼터시설의 접근이 크게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 분야에서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조사한 국내외 질적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대표적 연구들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혹은 아동의 학대경험을 조사하고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치료적 프로그램의 이론적 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연구(고미영, 2004; Anderson, Gillig, Sitaker, McCloskey, Malloy and Grigsby, 2003; 박태영, 2002; 신혜섭, 2000; 최은희·윤여정·류경희, 2005; Taylor, 2001)와 가해자의 행동특성과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다(Peled, 1999; Gregory and Erez, 2002).

3. 연구 방법 및 과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매맞는 여성의 생존(survival)과 관련된 복합적 현실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매맞는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폭력가정의 위기와 딜레마, 피해자의 대처노력, 모-자녀관계의 의미 등을 이해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매맞는 여성들을 지지할 수 있는 개입전략들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본 조사의 연구문제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매맞는 여성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가?(How do battered women survive with their children?)’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이 매맞는 여성들과의 심층면담에서 고찰될 것이다.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매맞는 여성의 주요 갈등(struggles)은 무엇인가?
- 매맞는 여성은 자녀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매맞는 여성의 생존과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적 의미는 무엇인가? 자녀의 존재는 매맞는 여성의 생존과 대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현상학과 심층 면담

질적조사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태도 및 인식을 형성하는 복잡한 현실을 민감하게 포착함으로써 그 현실을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적 특성과 그것의 실제적 의미들을 도출하고 분석하는데 탁

월한 접근이다(Marshall and Rossman, 1989). 특히 질적연구의 대표적 조사방법인 현상학은 연구대상의 인식과 경험들의 본질적 측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현상에 대한 기술전략으로 특정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지는 않는다(Colaizzi, 1978). 타인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은 타인의 행동의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므로(Holstein and Gubrium, 1994) 심층면담은 현상학적 조사의 대표적 자료수집방법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고유하고 복잡한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자 수행되는 본 조사는 매맞는 여성의 이야기를(story-telling) 통해 당사자의 인식과 의미해석을 간주관적으로 포착하는 현상학적 심층면담방법을 활용하였다. 한편 연구자의 선이해나 편견을 점검하고 괄호치기(판단중지)하기 위해 현장일지를 병행하면서, 개별면담 이후 참여자들과의 비구조화 된 모임을 통해 자료의 참여자 관점을 확인하였고, 또한 그 쉼터의 사회복지자 두 명과의 면담을 거치면서 수집된 정보의 투명성과 사실성을 보완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질적조사는 대상의 선정과 확보에서 있어 대표성과 일반화보다는 분석될 자료의 투명성과 사실성 그리고 자료정보의 심층성이 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Marshall and Rossman, 1989). 본 조사는 안양과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상담서비스와 쉼터를 보유하고 있는 두 기관을 선정하였다. 안양기관은 연구자가 자료수집 1년 전에 집단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피해여성들과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관찰과 직원들과의 면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있었으며, 서울기관은 안양기관장의 소개로 선정되었다. 안양 쉼터는 자녀와 동거 가능한 시설로써 당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 중 자녀가 있는 여성 5명과 퇴소 후 상담을 받고 있는 여성 1명을 포함하였고, 서울 쉼터는 자녀와 동거할 수 없는 시설로서 현재는 자녀와 동거하지 못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 4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쉼터의 특성상 참여자들의 이전 거주지는 서울과 안양을 포함하여 전라도·경상도·충청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쉼터 거주는 짧게는 3일 길게는 3개월의 입소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들의 자녀 연령 범위는 7세-20세이다.

심층면담은 2005년 10월과 11월에 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쉼터에서 수행되었다. 참여자 10명과 각 2시간 내외의 반구조화 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개별면담 이후 참여자들 모두와 약 1시간 반 정도의 비구조화 된 모임을 통해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싶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확인하였으며, 그 쉼터의 직원 두 명과 각각 1시간 내외의 면담과정을 통해 참여자 중심의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음된 자료는 제 삼자에 의해 모두 녹취, 필사되었고, 자료분석은 질적조사 소프트웨어인 아틀라스티(Atlas.ti)를 활용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독일 무어(Muhr, 2004)에 의해 최초 개발되어 최근에는 한글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므로 수집된 방대한 질적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류(코드화), 주석, 통합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폭력경험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참여자 | 연령 | 자녀수/ 결혼연수 | 폭력 경험 |
|--------|----|--------------|---|
| 참여자 1 | 35 | 2/16 | 남편이 심한 의치증과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사. 여성의 자살미수경험이 몇 차례 있었고, 남편이 자녀들에게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보고함. |
| 참여자 2 | 39 | 1/14 |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폭력이 모두 심하였으며 칼 등의 무기를 사용으로 여러 번 입원하였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폭력을 당할 기회가 많았으나, 딸에 대한 직접적 폭력행사는 없었다고 보고함. |
| 참여자 3 | 36 | 2/12 | 심각한 폭력으로 수차례 탈출. 비밀리 별거 시도 그리고 이혼에 성공했으나 남편의 사과와 추적으로 다시 재혼. 그러나 폭력이 순환되고 자녀에 대한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자 쉼터로 탈출함. 한 번 자살 시도 경험 있음. |
| 참여자 4 | 43 | 4/21 | 남편의 외도로 자주 성병이 걸리고, 심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으로 정신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음. 성장한 딸들도 점차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었고 수차례 탈출과 별거를 시도한 끝에 자녀들이 엄마의 탈출을 지지하여 쉼터에 오게 됨. |
| 참여자 5 | 41 | 2/17 | 사업실패 후 남편의 정서적·신체적 폭력이 시작되었고 최근 골반뼈를 심하게 다치면서 쉼터로 탈출하게 되었고 현재 이혼 재판 중이다. 자녀들이 폭력을 말리면서 목격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음. |
| 참여자 6 | 39 | 2/18 | 의치증을 동반하는 정서적·언어적·재정적 학대가 점차 심해지다가 최근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어 병원에 실려 가면서 쉼터로 오게 되었음. 딸과 아들에 대한 가해자의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엄마에 대한 불만과 험담을 자주 자녀들에게 이야기함. 아들의 딸(누이)에 대한 폭력적 행동 엿보임. |
| 참여자 7 | 37 | 1/13 | 연령차가 많이 나는 남편과 결혼 후 17일 이후부터 심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고 수차례의 유산 경험을 갖고 있음. 탈출 직후 자살 시도를 하였으나 구출되었고, 부랑인 생활 도중 쉼터로 오게 됨. 자녀는 직접적 폭력 피해 없음. |
| 참여자 8 | 40 | 2/18 |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심한 부상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경험이 수차례 있었다고 보고함. 딸은 아들과는 달리 아빠의 직접적 폭력의 피해를 받았으며 매우 우울하고 비사교적 특성이 엿보임. |
| 참여자 9 | 44 | 2/12 | 의치증을 수반한 신체적·성적 학대가 매우 심하였지만, 남편의 집착과 통제로 탈출과 이혼을 결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보고함. 두 딸은 하숙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고, 과거 아빠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없다고 보고함. |
| 참여자 10 | 32 | 2/11 | 남편은 친지와 동료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친구의 도움으로 쉼터로 탈출을 시도함. 아들은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보고함. |

4. 결과 요약 및 분석

1) 심층면담과정의 전체적 개요와 참여자 특성

심층면담의 참여자들은 모두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정서적·언어적 학대를 보고하였고, 그 중 일부는 자녀도 역시 신체적 폭력 혹은 정신적·언어적 폭력의 피해자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자 모두 10년 이상의 가정폭력의 역사를 통해 현재 쉼터에 오기 이전에도 폭력을 피해 수차례의 가출 및 피신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위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본적은 없었다. 한편 폭력의 범위나 정도 그리고 자녀가 폭력피해의 직접적 대상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일관된 유형이 있다기보다는 복합적인 특성이 엮보인다. 즉 피해여성에 대한 신체·정신·언어적 폭력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적으로 수준이 강화되는 공통성이 있으나 유형별 순서와 복잡정도는 다양하다. 자녀들의 폭력피해 여부 역시 가해자의 폭력이 피해여성과 자녀 모두에게 처음부터 가해지는 경우, 자녀가 개입할 때 동반되는 경우, 피해여성의 탈출과 피신 시 나타나는 경우, 피해여성의 희생양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이 출현하는 경우 등이 모두 보고 되었고, 모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아들이나 딸 혹은 특정 자녀에게만 어느 유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사례마다 다양하다.

면담과정 시 공통적으로 발견된 참여자들의 특성 중 하나는 실제적인 감정들의 표출에 대한 '저항'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면담초기에 가해자 남편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면담이 진행되면서 초기의 언급과는 아주 대조적인 부정적 측면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폭력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자녀에게는 좋은 아빠죠' 혹은 '애들한테는 손을 안댔죠'라는 대답으로 자녀들의 폭력 목격이나 경험을 최소화 혹은 부인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후반부에 자신들의 폭력의 역사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폭력 경험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경험적 현실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개방성이 증가되었고 자녀들에 대한 깊은 염려와 죄책감 등의 복합적 감정들을 표출하였다. 면담과정 초기에 참여자들의 이런 저항적 특성을 조금씩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녀양육경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참여자들의 부부관계의 역사를 라이프 스토리 형식으로 진술하는 과정을 먼저 선택하였다. 위의 참여자 10명 외에 3명의 피해여성들이 면담에 참여하였으나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지 못한 상태였고, 특히 자녀와 관련된 심층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속되어 연구문제와 관련된 면담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2) 연구문제 분석

도표 1은 연구문제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매맞는 여성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가?(How do battered women survive with their children?)’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으로 도출된 3개의 영역과 각 영역의 하위주제들을 포함한다. 첫 영역인 ‘현실에 대한 저항과 혼돈’의 하위주제들은 ‘자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가정폭력의 현실’을 ‘부인, 회피, 최소화’ 그리고 ‘좋은 아빠(가해자)에 대한 혼돈’을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 영역인 ‘현실 대면’은 자녀와 공유하는 ‘모성과 효성의 위기와 상처’, 자녀들의 개입에 따르는 ‘자녀와의 공조된 생존 전략, 그리고 어머니가 목격하는 ‘자녀의 피해’를 하위주제로 포함하며, 세 번째 영역인 ‘머물 수 없음’의 하위주제들은 현실의 대면 이후의 매맞는 여성의 ‘떠날 수 없음의 재고’와 어머니의 머물 수 없음에 대한 ‘자녀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의 대처와 자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영역의 하위주제들은 매맞는 여성의 생존과정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적 의미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보여준다는 면에서 내용적 연계를 보인다. 대부분 참여자의 진술을 해석과 함께 예시하였고 하나의 현장일지가 예시로 활용되었으며, 진술에 대한 보완 설명과 해석들은 참여자들과의 개별면담 및 그룹면담, 컴퓨터지원면담에서 얻은 정보 그리고 현장일지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이다.

<도표 1>

| 연구문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매맞는 여성은 어떻게 생존하고(survive) 있는가?” 세 가지 영역과 영역별 하위주제 |
|--|
| ① 현실에 대한 저항과 혼돈 : ‘자녀에게 감추고 싶은 가정폭력의 현실’, ‘부인, 회피, 최소화’, ‘좋은 아빠’에 대한 혼돈’ |
| ② 현실 대면 : ‘모성과 효성의 위기와 상처’, ‘자녀와의 공조’, ‘자녀의 피해’ |
| ③ 머물 수 없음 : ‘떠날 수 없음의 재고’, ‘자녀의 이해와 지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

(1) 현실에 대한 저항과 혼돈

① 자녀에게는 감추고 싶은 가정폭력의 현실

매맞는 여성 역시 보통 어머니처럼 자녀에게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자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현실이며 어머니에게 심각한 모성적 위기와 도전을 안겨준다. 참여자 모두는 애초 자신의 폭력경험을 가능한 자녀들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욕구는 모-자녀관계에서 자식을 향해 본능적으로 흐르는 보살핌과 사랑의 에너지들로 구성되는 모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떤 가해자 남편들은 아내들의 이러한 욕구를 애초에 저버리고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공공연한 학대와 폭력을 일삼기도 하지만 만약 가해자 남

편이 은밀한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를 원할 경우 아내입장에서는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더 순종적인 희생양이 되기도 하였다. 견딜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성적 학대를 겪으면서 자녀들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려했던 참여자들의 진술은 비참한 모성을 보여준다.

“처음엔 싸움은 밤에 했었지요 **애들한테는 창피한 일**이니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래도 **나만 더 잘하면 남편도 잘하겠지. 그래서 애들한테 더 잘해주고 남편한테 더 애교 떨면서...** 근데 맞으니까 더 **억울하잖아요...** 내가 **엄마 자격은 있는 건가...**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 (참여자 7)

“안방 문 닫고 들어가면 그 때부터 고문은 시작인거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주며 저를 밤새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남들은 정말 모르죠. 애들이 밖에서 들을 까봐, 그냥 그렇게 당해준다** 생각하면서...” (참여자 4)

② 부인, 회피, 최소화

매맞는 여성의 '가정폭력의 현실을 자녀에게 숨기고 싶은 욕구'는 때로는 자신과 자녀에게 다가오는 현실적 도전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방해했을지도 모른다. 모든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가정폭력경험에 관한 의식적 수준의 인식과 진술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가진 부모로서 느끼는 참여자들의 자책감과 관련되며 그들이 자녀들의 피해사실을 심리적으로 부인 혹은 최소화 등의 방어기제를 통해 다루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대화는 참여자의 저항의 한 예를 보여준다. 이 여성은 18년 동안의 결혼생활 내내 폭력에 시달리면서 수차례 칼에 찔린 경험을 하며 생명의 위기를 느껴왔었지만 쉽게 그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연구자: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던가요?

참여자 8: 보는 앞에서는 **어쩌다** 그러고, 방에 데려가서 문 닫고 그러고.

연구자: 애들이 들었을까요?

참여자 8: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다 들죠.**

연구자: 애들이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혹시 느낀 적은?

참여자 8: **계속 힘들어했을 거예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애들을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말썽 안 피우고. 글썽, 제가 **이기적인가, 애들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큰 애 대학 들어가고 일을 벌이려고 했는데, 저 혼자 애들 대학 보내기가 힘드니까... 옛날부터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셋이 편하게 살 텐데...(울음을 터뜨림).

위의 참여자는 면담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자녀들은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었다고 말한 초기의 진술과는 달리) 두 자녀 모두 어머니의 폭력의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며 만팔의 경우 많이 맞았다고 고백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자녀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몹시 우울하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명확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겪었던 힘든 생존과정의 영향인지 자녀들의 욕구나 부모역할에 대한 질문에 다소 당황과 생

소함을 느끼는 듯 보였으며, 자녀의 고통을 목격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참여자들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비추었다. 따라서 자녀의 가정폭력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인식만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표출되지는 못하였으며 보다 자신들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면담의 시점에서 그들이 목격했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보고할 수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 긴 세월동안 폭력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한 경험을 가졌으므로 그들 자신이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목격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건드려지는 것은 매우 불편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나마 현재는 자녀들과 함께 그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졌거나 혹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게 된 처지에서 그들이 자녀들에 관한 인식을 보다 수용적이고 객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일 수 있다.

③ '좋은 아빠'에 대한 혼돈

보통의 아내처럼 매맞는 여성은 배우자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설사 매맞는 여성이 배우자가 더 이상 '좋은 남편'이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좋은 아빠'에 대한 기대마저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 남편이 '좋은 아빠'가 아닌 현실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매맞는 여성이 어머니로서 느끼는 또 다른 위기이며 도전인 것이다. 참여자들은 가해자 남편이 '좋은 아빠'가 아닌 현실을 초기에 최소화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며 가해자의 편에 서서 자녀들을 달래고 설득하는데 일정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자식들은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방에 다 들어가 있죠. 어느 날부터는 **아빠하고 대화하는 것을 피하죠.** 근데 저는 **아빠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주기 위해 아빠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게 되죠.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아빠 성격이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아빠를 이해해야지. 아빠도 언젠가 변화가 오겠지.’** (참여자 4)

'남편을 자녀의 아빠로서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은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다소 주관적이고 분절적인 평가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먼저 남편을 '자녀한테는 좋은 아빠'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인식의 원천에는 남편이 자녀에게 만큼은 '가해자'로서가 아닌 '아빠'로서의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경험적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여성이 믿고 희망하고 기억하고 싶은 선별적이고 부분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참여자들이 표현한 '좋은 아빠'와 연관된 가해자의 실제 모습에 대한 진술들에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어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적이기도 하다. 아래의 한 참여자의 진술에는 아빠로서의 행동들과 자녀들의 반응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들은 상호 상반되는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있다.

“애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 자상하고, 아빠로서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하고), 같이 책도 봐주고 게임도 해주고 뭐든지, 뭐든지 애들 위주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와중에 자기만의 기준 있잖아요. ... 근데 **애들은 아빠를 참 좋아**

했어요. 불안해하는 건 (있었지만), 언어적인 거 때문에. 직접 눈에 보이는 폭력은 안했어요. 애들 앞에서는 안 했어요. 쥐어박는 정도, 이런 걸로 탁 때리는 것은 했지만, 심각하게 다치게 하는 것은 안 했어요... 애들은 약간 불안하고 공포 그런 것은 있었죠.” (참여자 1)

위의 진술에는 참여자가 인지하는 좋은 아빠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이미지(긴장, 불안, 공포의 대상)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빠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려는 참여자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그녀가 기억하는 자녀의 말들에는 가해자가 어떤 아빠였는지 대한 자녀들의 부정적 인식이 뚜렷하게 예시되어진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말 중에 하나가 큰 아이가 어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어디 멀리 출장 좀 갔으면 좋겠다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출장 갔으면 좋겠다**였어요. 우리끼리 잠깐 편할 수 있잖아. ...애들도 스트레스예요. 긴장하고 다녀야 하니까... 긴장의 대상이죠. 아빠가 술 먹으면 불안하고 분명 말이 곱지 않게 나갈 거고. 큰 소리 날 거니까. 그런 **불안의 대상이긴 하지만 아빠를 참 좋아하긴 해요...** 작은 아이는 아빠랑 살갑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나한테 **엄마는 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했어?**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참여자 1)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폭력을 피해 가출 및 피신 등의 문제해결을 시도하던 참여자들이 가해자 아빠에 대해 혼돈을 갖는 데는 자녀들의 아빠에 대한 본능적 애착과 그리움의 표출이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래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정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래도 아들이라서 그런지 **아빠를 보고 싶어하더라구요.** 아들은 아빠한테 누나보다 더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도 **보고 싶어하더라구요.** 애달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상처도 많지만 아빠에 대한 추억도 많아요. 목욕탕도 같이 가고 경마장도 같이 가서 말도 같이 찌고. 그래서 그런지 **그림을 그리면 꼭 말을 그려요.**” (참여자 3)

“쉽터 생활을 시작하며 침대가 세 개 나란히 놓여 있는 방에서 애들과 함께 누워있는데 애들이 그랬어요. ‘엄마, **우리 같이 나가서 아빠랑 떡볶이도 먹고 맛있는 것 먹고 맛있는 것 먹었던 생각난다.**’고요.” (참여자 1)

(2) 현실 대면

① 모성과 효성의 위기와 상처

남편의 폭력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폭력의 정도가 점차 심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매맞는 여성은 가정폭력현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자녀들이 자신들의 현실에 개입되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자녀들을 자기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로 기대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모성은 깊게 상처받는다. 이 생존본능과 모성본능 사이에서의 갈등과 상처를 통해 매맞는 여성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괴감과 자책감**을 경험하게 한다.

“애들이 보는 데서 때리면 정말 내가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은 있잖아요. 평상시

처럼 애를 아래 이웃집에 내려 보냈었는데(피신시키기 위해)… 그날은 다시 애를 불러 들였어요.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더러구요. 맞은 게 있어서. ‘애들 있으면 덜 패겠지’하는 생각이 들었나봐요. 애들이 ‘아빠 왜 이래? 엄마 불편한데 왜 그래’ 애들이 그래 주잖아요. 애들이 방패막이 돼주길… 부모 싸우는 것 안 보여주는 게 원칙인데 내 몸이 그렇다 보니까…아휴(한숨을 내쉬). 가슴이 아프죠.” (참여자 5)

다른 참여자 역시 10살 난 자신의 아들을 평상시엔 ‘애기’라고 부르지만 한 순간 생존을 위해 그 ‘애기’가 방패막이로써 그 현장에 함께 있어주기를 기대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가해자 남편이 자녀에게 만큼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판단을 갖고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방패막이’의 기대를 가지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고 자녀들 역시 가해자의 폭력 위협에 노출되어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애 아빠가 출근길에, 도발적인 거예요. 구두를 들고 잔인하게 제 머리를 향해 던졌어요. 제가 피했는데 제 뒤에 있던 큰 대형액자가 산산이 조각이 났어요. 애기하고 제가 (유리조각을) 뒤집어쓰게 되었지요. 애기를 끌어안고 있는데 때리겠다 싶어서 애기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막 저에게로 뛰어오는 거예요. 애기가 다칠까봐 애기를 밀쳐냈어요. 여기(목덜미) 붙잡고 잔인하게 (이마를) 내려치더라구요. 너무 아팠어요. 하늘에 별이 번쩍 나더러구요.” (참여자 2)

매맞는 여성이 **생존본능과 모성본능**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수행해야 한다면, 자녀 역시도 부모를 향한 사랑으로써의 **효성본능과** 자신의 **생존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깊은 상처를 경험한다. 폭력이 장기화되면 자녀들은 부모간의 폭력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일정 정도의 나이가 든 자녀들은 폭력으로부터 어머니를 구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게 된다. 아래 한 참여자의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더 이상 폭력을 참지 말고 탈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순간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그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머니로서 올바른 선택인지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진술이다.

“아빠가 심사가 이상하면 그날은 죽는 날이지요. 애 아빠가 뭔가를 사러 나가자 아들이 자기 용돈 6만원을 주며, ‘엄마, 다시 고문당하고 **매 맞지 말고 이 밤에 탈출하세요. 제발 좀 떠나세요.**’ **절보고 (울면서) ‘참기 힘들어요.**’ 제 손에 돈을 쥐어주며 빨리 가라고 하는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도저히 못 나오겠더라고요. (왜요?) 아들을 거기에 그냥 두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식이니까.” (참여자 5)

아래 참여자의 모성적 선택은 자신은 생명의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자녀는 어머니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잔인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모자(母子)는 서로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들의 **모성과 효성은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 이 참여자는 면담이 끝날 무렵 아들에 대한 상담치료를 부탁하면서 최근 아들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덧붙였다. 아래 진술은 자녀들이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실함과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들 자신도 역시 폭력의 공포와 긴장 속에서 자기방어 욕구를 갖게 되는 경험을 보여준다.

“그날 고문을 당하고 몇 번이고 기절했다 깨어났다 했었는데 그날은 23시간 마다 저를 찌르고 때려서 피명투성이를 만들었는데(부엌에서)… 아들이 식탁 앞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죽음의 길 문턱에 갈 때까지 맞았지요.** 거의 10여일 동안 거동을 못하고 애들이 끓여다 주는 죽만 먹었으니까요.”(참여자 4)

“아들은 저한테도 잘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한번은 제 누나가 제안을 했어요. “넌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니까, …**엄마를 개 패듯이 썰 때, 뒤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꼭 끌어안고 현관 밖으로 내보내서 문을 잠그든지, 쳐다보지만 말고 ‘아빠 그만 하세요’ 이렇게 한번만이라도 해 봐.**” 그런데 죽어도 못한테요… 오히려 “**누나라도 한번만 제발 해 봐**”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아들) **너무 무서워서 할 수가 없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온데 닭살이 돋고 머리칼이 더 설 정도로 아빠가 무섭대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라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참여자 4)

② 자녀와의 공조

매맞는 여성들은 애초의 모성적 기대와는 달리 자녀들이 가정폭력의 현실들에 동참하게 되는 상황을 대면하고 생존을 위해 그 상황을 허용하게 되는 선택들을 하게 된다. 아래 참여자는 심하게 맞은 날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탈출을 시도하고, 같이 탈출한 아이들은 심하게 부상당한 어머니를 병원에 보내고 한 모텔에 남겨져 밤을 보내야 했다.

“눈을 맞아서 엎어져 있는데 남편이 찢러 죽인다고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애들은 방에 있고… **칼 들고 설치니까 제 딸을 불렀어요. 옆집 아랫집 다 깨우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진짜 옆집 아랫집에서 다 나왔어요. 다행히 애들은 옷을 입고 있어서 애들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나도 나와 버렸어요. 나와 가지고 모텔을 들어갔어요. 입이 다 터지고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코를 흥이렸는데, 눈알이 돌출이 되는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얼른 틀어막았더니 우리 딸이 ‘**엄마 어떻게? 그래서 ‘괜찮아, 자고 있어’….**눈을 틀어막고 모텔 주인한테 제가 이래저래 병원 가야 되겠으니까 애들 좀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참여자 3)

결국 폭력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장기화되면 자녀들에게 숨길 수 없는 위기적 상황들이 찾아지고 **생존과 안전을 위한** 매맞는 여성들의 대처는 **자녀들과 공조된 전략**으로 변화하게 된다. 아래의 진술은 한 폭력가정에서 어머니와 두 자녀들이 공조한 생존 전략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이 시나리오를 마치 적의 예측불허의 무차별 폭격에 상시적으로 길들여져 언제든지 집을 버리고 마을 숲 속 반공호로 뛰어드는 선량한 희생자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아직도 밖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부모 품속으로 돌아와야 할 자녀들이 아버지를 피해 어머니와 숲 속으로 도망쳐 나와 이런 생명부지의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이성이 없어요. 애들보고 밖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어디가? 그 소리가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다 튀어 버린 거야. … 우리는 애들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는 장소가 항상 있어요. 항상 ‘**연습**’이 돼 있거든요…우리는 딱 그러면 어디 몇 번째 단지 놀이터 **어디 수풀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참 후 내려가서 숲을 다 찾았는데, 애들이 없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나기로 한 장소가 바뀐 거죠. 얼마 전에. 전 옛날 장소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이 탁 나는 거예요. 크게 부르면 애 또 놀랄까봐, 작게 불렀죠. 대답을 안 해. 00아 숲이라서. **엄마 나 여기 있어. 아휴.**” (참여자 3)

③ 자녀의 피해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질문(자녀의 목적)과 관련되어 자녀들이 자신들과 함께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자녀들이 큰 좌절과 고통을 경험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서적 감정들--슬픔, 분노, 걱정, 연민, 좌절--을 표출하였다. 아래 참여자는 딸이 남편의 심각한 폭력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정서적 불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 채고 있었다.

“(벋속에서부터 엄마구타 경험) 병원에 갔었는데 근데 애가 아주 어릴 때부터(세살) 계속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지고 화장실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세 살 먹었을 때도 엄마 맞는 것을 보고 애가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사람이 왔는데도 다 필요 없었어요. 칼 가지고 설치는데. 금방 죽일 것 같았어요. 결국 칼에는 안 맞고 죽도록 맞았는데…. 점차 딸아이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했고 (집에 돌아오기가 무서우므로), 가능한 집에 있어도 친구와 함께 있으려고 해요.**” (참여자 7)

아래 참여자 역시 딸의 정신건강 그리고 성격과 인생관에 가정폭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무기력과 무책임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진술하였다.

“큰 딸은 **두통약을 달고** 살았어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울먹이며). 아이들한테 너무 큰 짐을 지게 한거, 아이들한테 **고통분담을 준거 평생 죽을 때까지 죄 짊어**요…. 큰애는 ‘엄마 나 결혼안할 거야. 엄마가 억눌리며 산거 너무 싫어. 난 혼자 세계를 돌아다니며 관광 가이드 하며 살 거야.’ (참여자 4)

또 다른 참여자는 큰 딸이 질병으로 죽고 작은 딸과 막내인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딸의 말을 회상하면서 자녀의 극심한 고통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고하였다.

“둘째 딸아이가 ‘그래, 엄마, **언니는 차라리 잘 죽었어**’. 적어도 이런 고통 중에 안 있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아빠는 트집을 잡을까? 아빠라는 인간은 이상한 인간인가봐. 뭐가 잘못된 사람인가봐…. 제가 **딸을 생각하면 많이 울어요(눈물).**” (참여자 8)

한 참여자는 자신의 아들이 점차 가해자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몹시 두려웠다고 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커서 아빠를 닮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아들을 위한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아들은 부모의 갈등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빠를 통해 배운 폭력의 방법으로 해소하려 하고 있고 그 대상은 역시 가장 가까운 가족인 누나였다.

“아들은 지네 **아빠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양보 없고…, 누나한테 **폭행도** 해요. 콧 때리구요…. 그게 다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게 아들 성격이 아빠를…. 제가 말리면, ‘누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멀어 진다’ 면서 누나보고 ‘나쁜 새끼’ 이렇게 욕해요. …여자 친구도 많은데 아들이 행동을 함부로 했다가 그 뒷일을 누가 해결해 줄거냐구요. 그게 걱정이예요.” (참여자 6)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매맞는 여성들의 가해자에 대한 '좋은 아빠'로서의 상식적 기대는 '좋은 남편'에 대한 기대처럼 무너지고 어느 순간 그 아빠는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가해자'로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대면하기도 한다. 아래 사례처럼 자녀들이 가해자의 폭력 대상인 어머니 대신 **죽음의 위기를 겪는 대리적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이 참여자는 아들 죽음의 절대적 위기를 직면하면서 남편과 관계를 정리할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갑자기 저를 때리다가 말고, 제 아들을 발목을 딱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아파트 베란다 밑으로 거꾸로 아들을 떨어뜨리려는 자세로). 떨어뜨려 죽인다고. 음. 근데 아휴…. 제가 달려와서 잡아야 하는데 그 날, 생각만 해도 지금도…, 악도 못 쓰겠더라고요. 흥분하면 손 놓을까봐. 애는 막 과랴게 넘어 갔더라고요. 그 때가 개가 6살 땀가 그랬으니까…. 나중엔 정신이 돌아와 애를 내려 놓대요.” (참여자 4)

참여자들 모두 가해자 남편을 전적으로 '나쁜 아빠'라고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가정폭력상황에 연루되는 자녀들의 고통과 슬픔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진술들을 통해 참여자들이 가해자의 '아빠'로서의 태도와 행동특성들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가해자의 행동특성들은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것', '아이들의 욕구를 권위와 경계 없이 무조건 해결해주는 것', '아이들이 보거나 듣는 것을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 '아내가 피신하여 집에 없는 경우 아이들을 추궁하며 괴롭히거나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 '폭력 직후 좋은 아빠처럼 보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주는 것', '아이들의 선호나 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 '엄마와 자식 사이를 이간시키거나, 엄마와 자식 사이가 가까운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경우' 등 이다.

(3) 머물 수 없음

① '떠날 수 없음'의 재고

애초 자녀에게 감추고 싶은 가정폭력의 현실들을 '좋은 아빠에 대한 혼돈' 그리고 자녀들의 현실에 대한 최소화 등의 방어기제로 다루고자 하였어도, 매맞는 여성은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실제적 현실을 목격하고 직면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자녀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참여자들의 대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은 참여자들에게 무척 힘든 도전이었다. 아래의 예시된 세 명의 참여자들의 반응은 그들이 받았던 모성적 스트레스를 반영하고 있다.

연구자: 그렇게 자녀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참여자5: 저는 그게 있었어요. 나오는 순간까지 애들을 무지 사랑했어요…. 남들보다 덜 자면서 애들 교복 같은 것 잘 챙겨주고 싶은 엄마였고, 또 애들 마음 다칠까봐 싸우기 싫은 엄마였고…. 남편을 어떻게서라도 조용히 자길 바랐기에 그래서 참았죠. 바보같이.

연구자: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지켜보고 힘들어하는 것 아셨어요?

참여자4: 너무나 잘 알죠.

연구자: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것 같으세요?

참여자4: ...나와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 그래서 나와 가지고 다시 들어갔고. 저에게 최고의 문제는 자식이예요. 자식하고 나와서 이런 곳에(쉼터)서 살 수 있다는 것 몰랐어요. 너무 바보처럼 살았고.

연구자: 딸이 엄마가 빨리 결심해주길 바랐는데 후회 없으세요?

참여자9: 글썸, 이기적인가. 애들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애들을 대학 보내고 일을 벌이려고 했거든요.

위의 진술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들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었던 이유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녀보다는 참여자 자신들의 욕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보게 되면서 스스로 매우 이기적인 존재라며 자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방어로 모성적 사랑에 대한 증거로써 자신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 세 번째는 가해자 남편을 '떠나는(leaving)' 것에 따르는 영향들을(경제적 불안정, 아빠의 부재 등) 고려하여 '머무는(staying)' 것을 자녀들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라고 인식하는 것, 네 번째는 일종의 자포자기로 가해자의 강한 통제와 집착 때문에 여성들의 분리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점차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식될 경우 자녀보호에 대한 모성적 역할을 포기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의 동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진술들에서 참여자들의 자책과 죄의식은 엇보였다.

매맞는 여성의 대처는 초기에는 단기적, 일시적 위기대응으로 출발하지만 점차 장기적, 영구 탈출을 계획하게 되며 '좋은 아빠에 대한 기대 포기'와 '자녀의 지지'는 이런 변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가해자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매맞는 여성과 자녀들의 기대는 혈연간에 흐르는 본능적 욕구이기에 정당한 것이지만, '가해자 변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야 하는 것 역시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성적 노력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아래 참여자의 진술은 가해자의 '개과천선'을 기대하는 매맞는 여성과 자녀들이 결국 기대에 어긋난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현실검증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모처럼 일 년 동안은 그 사람한테서 벗어났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애들의 양육비를 주고 주말에 데려가서 아이들과 지내는데 일 년간, 단 한 번도 여기는 적이 없었어요. 애들이나 저에게 너무나 신사적이고 친절했죠. ...몇 번 저 앞에서 막 울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 저는 그가 개과천선을 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리고 나니 정말 눈이 떠진 것 같았어요. 애들과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자 5)

② 자녀의 이해와 지지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참여자들은 가해자와 '머물 수 없음'에 있어 자녀의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자녀들이 때로는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직시하면서 자신들의 욕구와 어머니의 욕구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 대안들을 찾게 되는데 그런 자녀들의 대처노력들은 참여자들이 가해자 남편과 분리되어지는 선택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결정적 동기를 제공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한 참여자는 딸 셋과 막내아들을 키우면서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아이들과 의논하기 시작하였고, 자녀들은 힘들지만 엄마를 위해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나와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몇 번이나 자식을 두고 떠날 수 없어 그 결심이 번복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했을 당시는 자녀들이 자신을 붙들며 주기를 기대했다고 고백했다. 어머니의 모성과 자녀들의 효성이 처절한 슬픔을 자아내고 있는 장면들이다.

“엄마가 더 이상 이유 없이 맞는 거, 너희들 앞에서 너희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맞는 것을 엄마 인생에서 용서를 할 수가 없어 홀로서기 하려고한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큰 아이를 붙들고 먼저 물었어요. ‘엄마, 내가 여기는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결정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동생들이 많으니 막내를 내가 맡을 까 하고 물으니까 자기들을 갈라놓지 말고 떠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따리를 다 싸주더라구요. (울면서) 아이들이 저를 사랑했어요. 하물며 우리 막내 열살박이가 엄청 울면서도, ‘엄마와 왜 헤어져야 하는지 느끼겠어?’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느낀다고, 아빠가 엄마를 못살게 하니깐 같이 못 사는 거라며 막 울었어요.” (참여자 4)

“애들이 다 짐을 싸 주더라고요. 저는 잠시 헤어져도 만난다고 다시 살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내면에는 아이들이 저를 붙잡아 주기를 원했어요. 사람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그냥 돌아서기가...” (참여자 8)

사춘기 이상의 자녀들의 어머니인 참여자들은 현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쉼터에서 생활하는 어머니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할 경우 어머니 안부를 묻고 쉼터생활에 좋은 점을 들으며 너무 좋아한다고 어머니를 격려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한다고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아래 참여자의 딸은 쉼터에서 피신중인 어머니를 만날 때 마다 어머니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어머니 자신을 먼저 지키라고 당부하고, 또 한 참여자의 진술은 어머니의 ‘떠올 수 없음’을 지지하는 아들의 효성과 생존(생명보존과 학업지속) 욕구의 절실함을 애잔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한 현장 일지는 쉼터에서 연구자를 만나고 있는 엄마를 위해 참여자의 11살 난 딸이 보여준 격려와 사랑이 담겨 있다.

“딸이 ‘제 염려는 하지 말고, 저는 죽어도 엄마 편이고, 이 딸을 염려하기 전에 엄마 자신을 지키세요... 아빠의 말에 현혹돼서 들어가면 안돼요’.” (참여자 6)

“아빠는 우리를 건들지 않고 때리지 않고 하니깐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깐 아빠 앞에서 붙어 공부를 다 마칠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엄마를 찾을 거예요. 엄마 제발 자살이나 죽지 말고 살아만 계세요.” (참여자 8)

“면담이 마무리 되는데 시간이 걸려 쉼터 식구들과 함께 점심을 한 후 다시 면담을 시작하게 되었고... 00씨의 딸이 면담하는 방문을 열며 ‘엄마, 화이팅’ 하는 손짓과 함께 웃고 있다. 00씨는 ‘그래, 알았어’ 하였고, 그렇게 서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일지 8)

③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가정폭력은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최고의 도전으로 매맞는 여성들은 심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함께 지치고 황폐화된다. 그럼에도 매맞는 여성들은 자녀의 임신이나 출산을 통해 새로운 생존 동기와 에너지를 부여받는 순간을 경험하는데 이는 불행하게도 계속되는 폭력을 견디는 동기와 힘을 제공하게 된다. 아래의 참여자들은 첫 아이의 출산 전 가정폭력으로 몇 차례 유산경험을 하였으나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결혼을 유지하고 생존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유산(폭력으로 인해) 했을 때 받았던 그런 충격이나 고통은 다 있었어요. 저는 제 딸을 낳고 보는 순간... 제 딸을 낳고 애가 보고 싶어서 잠도 안 잤어요. ... 정말 막 진짜 (남편에게) 절까지 해주고 싶더라고요.” (참여자 3)

“결혼하고 딱 17일 만에 맞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몇 번을 그렇게 아이를 잃고도, 딸을 낳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아마 네가(딸) 나오려고 내가 살아있었나 보다.’” (참여자 7)

그러나 장기간의 심각한 가정폭력은 매맞는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자녀양육 및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 에너지와 능력을 소멸시킨다. 참여자들 모두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들 중 몇몇 참여자들은 자살미수에 그쳐 생명을 건진 적이 수차례 있었음을 보고 하였다. 부모로서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좌절감의 경험이 자살동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래 참여자는 남편이 폭력전과범으로 무서워서 참고만 지냈으며, 딸이 혼자 남겨져 공포 속에서 지낼 것을 예상하면서도 데리고 나올 엄두조차 못 냈다고 말하였다. 딸을 두고 혼자 집을 떠날 수 있었던 동기에 대해 참여자는 ‘심하게 맞은 날 이리다간 언젠가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신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가출 직후 딸을 두고 온 것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 약을 구하여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출되었다. 매우 아프고 수척해 보이는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그저 ‘아픈 사람’으로만 기억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없이 쓸쓸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이 쉼터에서 난생 처음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실오라기의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였다.

“그게(폭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플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는 고통을 잊으려고 술도 마셨죠. 하여튼 온전하게 앉아서 아이를 볼 수 있지도 못했어요. ... 그래서 딸에게는 내가 좋은 엄마라기보다는 그저 항상 ‘아픈 엄마’였죠. ...그래서 슬프죠(울음). 애가 친구 데리고 와도 잠만 자야하는 그런 실정에서 사니까. 개도 이제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엄마는 그저 ‘아픈 사람’...” (참여자 7)

가해자 폭력의 강도가 커지면 매맞는 여성은 기존의 대처가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공포와 불안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서 또 다른 대처로써 자살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의 선택과정은 쉽지 않지만, 자녀의 존재는 그 죽음의 선택 혹은 철회라는 선택 모두에 의미심장한

동기를 제공한다. 아래 진술들은 매맞는 여성의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의 자녀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해준다. 두 진술은 자살이라는 사건을 통한 ‘죽음의 선택’과 ‘죽음 선택의 철회’라는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지만 결국 동전의 양면 같이 매맞는 여성의 모성적 갈등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다.

“너무 급하게 도망을 나오면서 그날은 애들을 미처 못 챙겼어요. 근데 너무너무 다시 들어가기가 무섭고 싫은 거야... 애들하고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애들하고 떨어져서 어떤 고통이 온 다는 걸 몰랐던 거지. ...지방으로 도망갔는데 암튼 막 두 달 정도를 버텼어요.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근데 안되더라구. 너무너무 힘든거야. 막 **진짜 밤마다 울고 그래도 그 인간한테 가기는 싫고 평생 살면서 애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려니 너무너무 그것도 죽겠더라고. 차라리 죽어야겠더라구요.** 호텔 들어가서 죽으려고 진짜 들어갔어. 떨어져서 죽으려구요.” (참여자 3)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죽을까 그 생각만** 며칠을 했어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예전처럼... 근데 **그 와중에 애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애들은 누가 봐주지, 저것들 어떡하나, 애네들은 얼마나 세상을 원망할까. 세상도 엄마도 아빠도 원망하겠지. 다시 죽으려고 가져갔던 고무줄을 들고 다시 왔어요. **그 고무줄 제 핸드백에 항상 있어요. 그거 보면서 다시-또-다시 살아요.** 이게 진짜 내가 마지막까지 간 순간이야. 내 인생은 그거 이상 내려갈 일 없을 것 같아요. (참여자 1)

5. 결과 요약 및 결론

전체 연구결과는 가정폭력의 지난한 역사를 공유한 매맞는 여성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생존해왔나 (How do battered women survive with their children?)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어머니와 자녀의 가정폭력경험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가정폭력은 자녀에게 가능한 알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현실로써 매맞는 여성은 자녀와 함께 마주친 현실을 즉각적으로 대면하기 보다는 그 현실을 최소화, 부인하는 태도를 갖게 되며, 가해자는 남편이자 아빠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기에 매맞는 여성과 자녀는 ‘좋은 아빠’에 대한 혼돈된 인식과 이미지들을 공유한다. 그러나 매맞는 여성은 결국 가정폭력의 장기적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목격하게 되는 자녀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면하게 되고 보다 심각한 모성 위기와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머물 수 없음’의 대처노력들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머물 수 없음’에 대한 자녀의 이해와 지지는 매맞는 여성의 적극적 대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매맞는 여성과 자녀의 주요 갈등(struggles)으로 모성과 효성의 위기와 도전을 살펴보았다. 모-자녀 관계에서 내재되어있는 ‘모성과 효성’을 ‘상대로 향하는 보살핌(Care), 신의(Loyalty)등으로 구성되는 사랑의 잠재적 에너지’라고 해석한다면, 일반적 가족관계에서 ‘사랑’은 가족구성원의 물리적 ‘생존’과 극단적 갈등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그러나 폭력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은 심각한 생존과 안전의 위협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과 대면하며 어머니와 자녀

의 '모성과 효성(사랑)'은 극단적으로 도전받게 된다. 즉 피해자들에게 '생존'과 '사랑'은 동시에 이루어내기 힘든 삶의 과제가 되어버리고, 만일 그들에게 '생존'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당사자는 사랑을 저버린 것에 대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랑'을 선택한다면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과 사랑'의 갈등은 가해자의 폭력이 유지되고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계속 증가되는 위기와 도전인 것이다.

한편 폭력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폭력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자 할 때 가해자가 남편 그리고 아버지라는 점에서 '모성' 혹은 '효성'의 원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요인들에 직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가정폭력 자체가 전달하는 공포와 긴장감은 피해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존본능을 자극한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커서 그 폭력에 대한 저항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큰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한다. 둘째, 피해자 자신의 폭력경험과 사랑받는 대상이 폭력 당하는 것 혹은 그 폭력으로 인한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삶의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과 에너지를 극도로 약화시킨다. 셋째, 가정폭력의 현실은 많은 경우 가족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의 '사랑과 이별의 양자택일적 결단'을 필요로 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슬픔·두려움·죄책감 그리고 양면감정들이 크다. 때로는 피해여성과 자녀들이 서로에게서 분리되는 선택을 결정할 때 자신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될 때 죄책감이 수반되기도 한다. 넷째, 가족관계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서와 기대는 때로는 매우 주관적이고 비현실적 평가와 희망과 연관되어지므로 많은 경우 객관적·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감정적 욕구에서 비롯되어진다. 예를 들면, 앞서 살펴본 '좋은 아빠'에 대한 혼돈이나 그리움은 그 혼돈과 그리움의 대상이 가해자의 '좋고 나쁨'을 떠나 가족인 남편 혹은 아빠의 부재를 힘들어하는 본능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폭력가정의 모-자녀관계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특성은 매맞는 여성의 '떠날 수 없음'과 '머물 수 없음'의 대처노력들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적 의미이다. 자녀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목적으로 매맞는 여성은 모성에 심각한 도전과 상처를 받게 되고 '좋은 아빠에 대한 기대'가 거짓 희망이라는 깨달음과 성장한 자녀들의 '어머니의 홀로서기 지원'을 경험하게 되면 '떠날 수 없음'의 선택을 재고하고 '머물 수 없음'의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결과 해석에 있어 이런 '--없음'의 부정적 표현들은 의도적인 것이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폭력적 상황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녀의 가정을 쉽게 '떠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낀다. 즉 '머물기도' '떠나기도' 그들 모두에게 아무런 희생과 피해가 없는 이상적인 최선책이 아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음'과 '머물 수 없음'을 차선의 대안으로 수용할 뿐이다. 이런 매맞는 여성의 상황들은 결국 절망과 회의라는 부정적 정서를 만들어내고 많은 경우 그들의 '떠날 수 없음'과 '머물 수 없음'의 대안들이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할 때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음'의 인식을 갖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결국 자살이라는 비상구를 찾게 된다. 여성들은 '모성의 포기'로써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맞는 여성과 자녀의 상호적 존재 의미는 서로의 생존을 향한 긍정적 에너지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연구결과와 사회복지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달체계와 실천프로그램의 개발은 피해여성과 아동의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가정폭력은 예고 없이 아동학대로 전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피해는 결코 매맞는 여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녀 역시 필연적으로 아동학대에 준하는 심리사회적 위기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현장전문가들은 가해자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여성과 자녀가 심각한 수준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다중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어머니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개입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매맞는 여성과 자녀의 미래지향적 대처(coping)에 필요한 레질리언스를 동원하고자 할 때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여성과 자녀 모두를 동시에 임파워먼트 시키는 개입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사 참여자의 목소리는 심각한 폭력의 후유증과 친밀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상처 그리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삶의 부담들을 극복하고자 애써왔던 놀라운 잠재력에 대한 증거였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발견한 자녀들은 폭력가정에서 무력한 피해자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증인으로 일정 정도 나이가 들면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보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어머니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고려와 자신들의 삶의 계획을 적응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매맞는 여성과 자녀는 서로의 생존을 위한 레질리언스를 동원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행정 및 전달체계상의 뚜렷한 분리현상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데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실천현장의 프로그램 역시 폭력가정의 피해여성과 자녀의 복합적 욕구를 동시에 이해하고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2004년 기준으로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48개소로 전체 보호인원은 584명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은 여성들의 심리정서적 및 의료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동반 아동에 대한 제반지원은 전체지원에 13.3%에 불과하며, 이 시설들에서 아동서비스 전문 인력은 찾아보기 매우 힘든 현실이다. 따라서 매맞는 여성들이 아동을 동반해야 하는 시설입소인 경우 더욱 제한적이고 열악한 자원을 제공받게 되므로 피해여성들과 자녀들은 분리되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다시 가해자와의 동거를 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도 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와 가족폭력서비스 체계간의 분리와 갈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두 서비스 체계간의 협력적 노력과 통합서비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된 법, 제도의 개선과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들에 주목하고 있다(Lewis, 2003; Humphreys, Mullender, Lowe, Hague, Abrahams and Herster, 2001; Beeman et al., 1999; Schechter and Edleson, 1994).

둘째, 가정폭력은 사회범죄이지만 가장 민감한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실제적인 현실들이 감추어지거나 왜곡되어 드러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당사자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조사된 실증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자녀를 양육하는 매맞는 여성의 복합적 스트레스를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매맞는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물리적, 정신적 에너지를 생존자체를 위한 고전분투에 쏟게 되는 현실을 갖게 되므로 자신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욕구에 정상적인 관심을 쏟을 수 없게 되므로 피해여성과 자

녀 모두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수준은 높고 모-자녀관계의 질 또한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맞는 여성의 갈등에 관한 자료는, 쉼터여성들을 위한 부모역할강화와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사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 분야의 현장 실천가들이 상호 협력을 기초로 피해자들의 상황을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점으로 이해하여 피해자비난모델(victim-blaming model)을 극복하며 피해자 역량강화중심의 통합모델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현장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조사는 매맞는 여성과 자녀들의 가정폭력경험을 여성들만의 목소리로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의 고유한 경험들을 더 민감하게 포착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갖고 있다. 폭력가정 자녀들의 목소리를 담은 후속연구가 뒤따른다면 앞서 제안한 폭력가정의 피해여성과 아동의 통합적 지지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보다 총체적인 정보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영. 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71-102.
- 김병주. 2004. 『가정폭력』. 엠-에드.
- 김연옥·박인아. 2000.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03-127.
- 김경신·김경란. 2004. "가족기능이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91-699.
- 김정란. 200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중학생 자녀의 학대 목격과 자녀 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5: 171-180.
- 김재엽·조학래·양혜원. 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27-54.
- 김재엽·양혜원·김희수. 2005.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분석: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0: 67-101.
- 김혜선. 1995. "아내구타 발생과 지속과정에 관한 연구: 매맞는 아내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태영. 2002. "구타당한 아내에 대한 가족치료의 적용". 『사회과학논총』 4: 47-85.
- 신성자. 2001. "부부의 자녀폭력 및 부부폭력과 자녀양육수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39-174.
- 신영화. 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은주. 2003. "아내구타 가정의 아동의 적응을 위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3: 145-164.
- 신혜섭. 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아내구타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연구』 16: 67-85.
- 여성가족부. 2005.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_____. 200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 229-258.
- 장희숙. 2003.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쉼터 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255-281.

- 조미숙. 1999. "가정폭력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5.
- 조미숙·이윤로. 1999. "아내구타가정과 아동의 적응: 연구논점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3: 165-186.
- 최은희·윤여정·류경희. 2005. "학대받은 아동의 쉼터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9: 37-7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살인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 황혜숙·신선인. 200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결중심 가족치료적용사례". 『사회복지연구』 23: 189-220.
- Anderson, M., P. Gillig, M. Sitaker, K. McCloskey, K. Malloy and N. Grigsby. 2003. "Why doesn't she just leave: A descriptive study of victim reported impediments to her safet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3): 151-155.
- Appel, A. E., and G. W. Holden. 1998. "The co-occurrence of spouse and physical child abuse: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578-599.
- Beeman, S. K., A. K. Hagemester, J. L. Edleson. 1999. "Child protection and battered women's services: From conflict to collaboration." *Child Maltreatment* 4: 116-126.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pp. 48-71. In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edited by R. Valle and M. King; New York: Oxford Univ. Press.
- Edleson, J. L. 1999. "The overlap between woman abuse and child abuse." *Violence Against Women* 5: 134-154.
- Fantuzzo, J. W. and C. U. Lindquist. 1989. "The effects of observing conjugal violence on children: A review and analysis of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Family Violence* 4: 77-94.
- Fincham, F. D., J. H. Grych and L. N. Osborne.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iles-Sims, S. J. 1985. "A longitudinal study of battered children of battered wives." *Family Relations* 2: 205-210.
- Gregory, C. and E. Erez. 2002. "The effects of batter intervention programs." *Violence Against Women* 8: 206-232.
- Hagen, J. L. and L. V. Davis. 1994. "Women on welfare talk about reform." *Public Welfare* 52: 30-43.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 and Stress* 5: 377--391.
- Holden, G. W. and K. L. Ritchie.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Holstein, J. A. and J. F. Gubrium. 1994. Phenomenology, ethnomethodology, and interpretive practice. pp. 262-272. In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edited by Dezin, N. K. and Y. S. Lincol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umphreys, C. 1999. "Avoidance and confrontation: social work practice in relation to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4: 77-87.
- Humphreys C., A. Mullender, P. Lowe, G. Hague, H. Abrahams and M. Hester. 2001.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Developing sensitive policies and guidance." *Child Abuse Review* 10: 183-197.
- Levendosky, A. and S. Graham-Bermann. 2001. "Parenting in battered women: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women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2): 171-183
- Lewis, N. K. 2003. "Balancing the dictates of law and ethical practice: Empowerment of female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in the presence of overlapping child abuse." *Ethics and behavior* 13(4): 353-366.
- Magen, R. 1999. "In the best interests of battered women; Reconceptualizing allegations of failure to protect." *Child Maltreatment* 4(2):127-136.
- Marshall, C. and Gretchen B. Rossman.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London.
- Martin, J. A. and E. Elmer. 1992. "Battered children grown up: A follow-up study of individuals severely maltreated as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16: 75--87.
- McCloskey, L.A., A. J. Figueredo and M. P. Koss. 1995. "The effects of systemic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 1239-1261.
- McKay, M. M. 1994. "The link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ssessment and treatment considerations." *Child Welfare* 73: 29-39.
- Muhr, T. 2004. User's Manual for ATLAS.ti 5.0 (Second Edition). Berlin.
- Nichols-Casebolt. A. and P. Spakes. 1995. "Policy research and the voices of women." *Social Work Research* 19(1): 49-55.
- Peled, E. 1999. "Barriers to children's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a qualitative study." *Families in Society* 80(6): 578-586.
- Pyles, L. and Judy L. Postmus. 2004. "Addressing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how far have we come?" *Affilia* 19(4): 376-388.
- Rosenberg, M. S., and B. R. Rossman. 1984. "The child witness to marital violence." pp. 183-210. In *Treatment of Family Violence*, edited by R. Ammerman and M. Herson: New York: John Wiley.
- Saunders, D. G. 1994.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rofiles of battered women: A comparison of survivors in two settings." *Violence Victim* 9: 31--44.
- Schechter, S. and J. L. Edleson. 1995. "In the best interests of women and children: A call for collaboration between child welfare and domestic violence constituencies." *Prevention Report* 13:1-7
- Slep A. M., S. G. O'Leary. 2001. "Examining partner and child abuse: Are we ready for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family viol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2): 87-107.
- Stiles, M. 2002. "Witnessing domestic violence: The effect on children." *American Family*

Physician 66(11): 2052-2066.

Taylor, W. 2001. "The lived experience of batter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7(5): 563-586.

Wolfe, D. A., S. K. Wilson, L. Zak. 1985.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relations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and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nsult. Clinical Psychology* 53(5): 657-665.

How Do Battered Women Survive with Their Children? : Phenomenology on Battered Women's Experiences

Chong, Hye-Suk
(University of Seoul)

The recent domestic violence research has emphasized an integrated approach to wife battering and child abuse to overcome separated understanding and problem-solving alternatives of the two phenomena in the past. This phenomenological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struggles and dilemmas of battered women and their children related to their surviving and coping with domestic violence in a mother-child relationship.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battered women who have children and reside in shelters in Seoul and Anyang, and were analyzed by Atlas.ti(a qualitative software program)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data analysis. Domestic violence can be transformed into and integrated with child abuse anytime, so battered women and their children share their crises and challenges related to motherliness and filial love. However, the mutual, existential meaning embedded i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can be the most important sources to mobilize their life energy and resilience in their coping efforts. The social work interventions for battered women and their children should be integrated with a premise of deep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realities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Key words: domestic violence, phenomenology, battered women, motherliness, coping efforts

[논문접수일 2006. 7. 10. 게재확정일 2006. 9. 25.]